

‘어린이날 황금 연휴’ 광주서 즐기세요

내달 3~6일 시청·시립도서관·역사민속박물관 등서 행사 다채

광주지역에서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별걸리·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3일에는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저글링 서커스, 옴니버스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랜턴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족을 맞이한다.

대형 에어바운스 2대가 설치되며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시화작품이 전시되고 안전체험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에서는 5월 한달동안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등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만의 구슬풍선 꾸미기 체험(5월3일),봄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4일)이 진행되고 사직도서관에서는 독서포춘쿠키 뽑기(3~4일),카네이션만들기 체험(7일),그림책 원화 전시,연체자 클린데이이 열린다.

산수도서관에는 나만의 와펜 키링 만들기(4일),매직별분쇼 공연(4일),책저금통,책 포스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5일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

다.

페이스페인팅,민속놀이,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분관인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무로로 펼쳐지는 행사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순천 담락재·현판 등 2건 전남 유형문화유산 지정

전남도가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계승을 위해 ‘강진 월남사 김강정 필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 약사 권 제16’과 ‘순천 담락재와 현판’을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고려 중기 불교 경전의 필사본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교육과 문화 교류 중심지로 기능했던 공간이다. 전남지역 종교적·사회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다.

강진 월남사 김강정 필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약사 권 제16은 당나라의 고승(義淨)이 한자로 번역한 총 18권의 불교 경전으로, 이번에 지정된 유산은 이 가운데 16권을 사경(寫經·경전을 옮겨 적은 것)한 것이다.

이 불경은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12~13세기 보현사에서 부호장(副戶長) 김강정이라는 인물이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본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제작시기가 이른 편에 속해 고려중기 불교문화와 사경예술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순천 담락재와 현판은 조선 후기인 1841년 옥천조씨 문중의 조진익과 조진룡 형제가 건립해 후손과 향리자제의 교육과 문인 교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

담락재는 효도와 우애, 학문적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 중심지 역할을 해온 문화 공간으로, 조선 후기 교육문화의 중요한 사례로 손꼽힌다.



‘광주시 활동 해설사 역량강화 통합교육’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활동 해설사 역량강화 통합교육’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해설사들과 함께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광주시 제공

135주년 노동절 맞아 “노사 상생·경제 활성화 역량 집중”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강기정 시장은 노동절(5월 1일)을 앞둔 28일 “지난 135년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며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광주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노

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노동인권센터의 문을 열어 노동약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노동계·시민사회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광주 노사민정은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 노사민정 대표 8명은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으로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켜겠다”고 다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농수산물, 글로벌 시장서 인기

1분기 수출 15.4%↑...김·음료·유자차 등 39.6% 늘어

미국 관세장벽 속에서도 전남 농수산물품이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농수산물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1억7916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과 신선농산물, 음료 수출 호조가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 수출이 1억2051만 달러로, 전체 67%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1.3% 늘었다. 특히 김은 9540만 달러로, 단일품목으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김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984만 달러로 55% 증가했다. 쌀, 배, 파프리카, 키위 등 대표적이다. 배는 대만, 키위

는 일본수출 확대에 힘입어 각각 51.4%, 1992% 증가했다. 음료는 963만 달러다. 배·유자음료 등 과일주스를 중심으로 64.7% 늘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다.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전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도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39.6%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김과 분유, 오리탈,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6%, 1.1% 늘었다.

시간별로는 목포가 3124만 달러로 43.5% 증가하며 농수산물품 수출 1위를 기록했다. 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고흥 2960만 달러(12.5% 증가), 신안 2655만 달러(22.6% 증가) 순이었다.

/김 호 기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확대...공급업체 모집

광주시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답례품은 기존 14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부자가 광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 대표 맛집, 체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생산·제조·서비스 업체 등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품목

을 제안하면 된다.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 공급업체의 지역 내 정착도, 신뢰도 등을 반영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5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고향사랑이음’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은행 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6월부터 신규 지급

전남도 65세 이상 160여 명 매월 6만원

전남도가 민주화에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6월부터 매월 6만 원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으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수당을 새로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며,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된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 명이다.

전남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현수막과 포스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